

여중생 소녀의 춤바람부터 장애인 축구단의 기적까지

방과후스포츠 수기 공모전 시상식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홍)가 17일

서울 방이동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2018 방과후스포츠프로그램 활동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체육회는 전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중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스포츠프로그램인 '신나는 주말체육학교'의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11월 12일부터 12월 7일까지 온라인 수기 공모전을 진행했다.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활동과 관련해 학교 안팎 프로그램 참여에서 느낀 점, 대회 참가 소감, 재능 나눔 후기 등을 담은 총 143편의 작품이 응모·접수됐다.

학생 부문에서는 동지여자중학교 손현서 학생이 '꿈의 공장'이라는 작품으로 최우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 작품은 주말체육학교 맨스 동아리에 참여하면서 성적에 대한 압박감을 내려놓고 공연, 봉사활동 등 다채로운 활동을 경험한 소감을 담았다.

강사 부문 최우수상에는 안동영명학교 김희수 토요스포츠강사가 선정됐다. 수상작은 '토요일에 완성된 우리들의 월드컵'. 신입교사 겸 초짜 축구 감독과 지적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장애인축구대회에서 4관왕을 기록한 과정을 이야기한다.

기타 참여자인 대전태평중학교 한동수 교사는 체육관도 없는 학교에서 시체육회 배구대회에 출전해 공동 준우승의 쾌거를 이루어낸 이야기를 다룬 '나와 너의 살아 숨쉬는 배구'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양형모 기자

광고판 하나가 배구판을 흔들다니...

OK저축, 스폰서 광고판 자체 철거 "KOVO 협조·승인 받아" 해명에도 사무국장들 "실무회의 무시" 분노 결국 오늘 이사회 공식 안건 상정



지난 13일 한국배구연맹(KOVO)에서는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했다. 남녀 13개 구단의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국장들이 상암동 한국배구연맹(KOVO)을 향의 방문했다.

전날 밤 사무국장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뜨겁게 의견을 주고받은 이들은 "식물회의가 된 실무회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주장을 알리자"면서 향의 방문을 결의했다. 도로공사, KGC인삼공사, 한국전력을 제외한 10개 구단의 실무자들이 KOVO로 몰려들었다.



OK저축은행은 11일 안산 상록수체육관에서 열린 흥경기서 KOVO 스폰서의 광고를 리그 구성원과의 합의 없이 철거했다. 'KOVO의 스폰서권리를 우선한다'는 원칙을 깬 OK저축은행의 행태는 19일 열리는 이사회의 공식 안건으로 올랐다. 11일 KB손해보험전을 치르고 있는 OK저축은행 선수단. 사진제공 | KOVO

●V리그 15년 만에 처음으로 사무국장들이 단체행동에 나선 까닭은

현 집행부 뿐 아니라 V리그 출범 이후 최초인 구단들의 단체행동이 나온 배경은 배구코트에 깔린 광고판 하나 때문이었다. 지난 11일 안산 상록수체육관에서 벌어진 OK저축은행-KB손해보험 경기를 앞두고 코트의 광고판 한 개가 사라져버렸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KOVO에서 새로 영입한 스폰서였다. 계약에 따라 모든 경기장의 코트에 이 광고판이 붙어 있는데 OK저축은행이 최근 "상록수체육관에는 이 광고를 붙이기 어려운 사정이나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OK저축은행은 KOVO에 공문도 보내고 단장과 사무국장 등이 찾아가 자신들의 뜻을 알렸다. 실무자회의에서도 이 안건을 거론했다.

하지만 KOVO에는 리그를 지명해온 원칙이 있었다. 즉 KOVO가 수익사업을 위해 영입한 스폰서가 회원사의 권리와 상충할 경우 모두의 발전을 위해 KOVO의 스폰서권리를 우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래서 V리그의 스폰서 가운데 건설사와 금융관련 회사의 광고가 가능했다. 그런데 OK저축은행이 제동을 걸고 나왔다. OK저축은행이 강공 드라이브로 나온 것은 회사 내부의 사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OK저축은행은 여러 경로를 통해 부탁을 했고 직접 그 스폰서와 만나 자체적으로 해결방법도 알아봤다. 위난 간곡하게 OK저축은행 측에서 부탁하자 KOVO도 해결방법을 알아봤다. 실무회의에서도 원칙을 고수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바꿔 19일 이사회 때 정식 안건은 아니지만 OK저축은행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기로 했다.

●갑자기 사라진 상록수체육관의 광고판, 분노한 사무국장들

19일이면 모든 일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었던 사안은 11일 경기를 앞두고 그 광고판이 사라져버리면서 폭탄이 됐다. 실무회의에서 OK저축은행의 요구 사항을 논의했던 사무국장들 누구도 이 사실을 몰랐다. 11일 TV로 경기를 지켜보고서야 뒤늦게 알았다. 결국 폭탄이 터졌다. 12일 밤에 단체 대화방이 뜨거웠다. KOVO 사무총장까지 초대해 사무국장들의 생생한 분노의 목소리를 알렸다.

분노했다. 그동안 실무회의에서 나온 안건들이 이사회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왜곡되고 분위기도 제대로 전해지지 않아서 불만이 많던 사무국장들에게는 울고 싶었던 참에 뺨을 때려준 꼴이었다. 13일 실력 행사에 나섰다. 이들은 향의방문을 통해 사무총장에게 이번 일이 발생한 과정과 추후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 재발방지책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다행히 KOVO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인정했다. 재발방지도 약속해 더 이상의 문제로 번지지 않았지만 현 집행부를 향한 각 구단의 실망감과 서로를 향한 시선이 어떤지는 확인했다.

●19일 이사회에 정식 안건으로 들어간 광고판 철거사건

이번 사안을 놓고 생각해보야 할 것이 한 둘이 아니다. 먼저 OK저축은행의 이번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아무리 회원사라고 해도 모두가 지켜야 할 룰이 있는데 이를 방지했을 경우 나중에 누군가가 또 다른 원칙을 위반할 길이 열린 셈이다.

KOVO는 여기저기서 원칙이라는 덕이 무너지기 일보직전이다. 외국인선수 영입, 셀러리캡 등 각 구단의 이해관계가 얽힌 민감한 사안은 한 둘이 아니다. 총재와 이사회의 구성원들이 이번 사안

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하다. 또 KOVO의 일처리 방식이다. 리그를 이끌어가는 원칙은 회원사들이 불만을 가지지 않게 공평정대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보의 공개를 통해 모두를 납득시키는 투명한 행정이 필요하다.

이번에는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그래서 사무국장들은 "실무진과 소통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지고 보면 큰 요구사항도 아니다. 자주 만나고 그들의 얘기를 귀담아 듣고 이사회나 총재에게 있는 그대로 보고하면 되는 일이다. 여차피 리그의 모든 정책의 최종결정은 이사회에서 나오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올바르게 전달하면 되는데 지금 이 과정에 많은 구단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

19일 열리는 이사회에는 OK저축은행과 관련한 이번 사안이 비공식 안건이 아니라 공식 안건으로 올라갔다. 만일 이사회에서 OK저축은행의 요구를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다시 상록수체육관에는 그 광고판을 붙여야 한다. OK저축은행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부하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생긴다. 원칙이 흔들리면서 일이 아주 복잡해지고 커져버렸다. OK저축은행도 다른 구단도 모두 원칙의 중요성을 실감할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까.

김종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

문화

묵화와 시의 향기에 취하다

인천은 문화다

내일 2018 우현상 시상식

학술상에 '우봉 조희룡' 저자 이선옥 '꽃 밭을...' 장석남 시인 예술상 수상 수상자 특별강연·시 낭독 콘서트도

2018 우현상 시상식이 20일 인천아트플랫폼(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218번길 3) A동 이음마당에서 열린다. 우현상은 인천이 낳은 한국 최초의 미학자이자 미술사학자인 우현 교유섭 선생의 학문적 업적을 기리고, 선생의 정신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인천문화재단이 수여하는 상이다.

우현상은 학술상과 예술상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한다. 올해 열리는 제31회 우현학술상에는 '우봉 조희룡'의 이선옥(미술사학

자), 제12회 우현예술상에는 '꽃 밭을 일을 근심하다'의 장석남 시인이 선정됐다.

시상식을 맞아 수상자들의 특별강연과 시 낭독 콘서트도 열린다. 특별강연의 주제는 '우봉 조희룡-19세기 목장의 영수'. 우현예술상 수상자 장석남 시인이 시 낭독 콘서트를 이끈다.

시상식에는 우현상위원회 김학준(인천대학교 이사장) 위원장을 비롯한 우현상 위원, 인천지역 각계 인사 및 문화예술인, 미학·미술사 분야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우현학술상 수상자인 '우봉 조희룡-19세기 목장의 영수'는 저자가 지속적으로 탐구해온 조선시대 사군자 그림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19세기 파격적인 매화그림으로 당대를 풍미한 우봉 조희룡의 삶과 예술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책이다. 서화작품뿐 아니라 저작을 통해 시인이자 문학가로서의 조희룡도 조명한다.

수상자 이선옥은 전남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미술사로 석사학,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조선시대 매화도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호남지방문화연구소에서 호남서화를 연구하고 있다.

우현예술상 수상자 장석남은 인천의 섬덕적도에서 태어나 인천에서 청년기를 보냈다. 이후 자신의 시 작업을 통해 인천바다와 노을,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애환을 아름다운 우리말로 풀어내왔다. 등단 후 30년 동안 꾸준히 아름답고 섬세한 문장으로 고풍한 낭만을 노래해온 대표적인 신시정파 시인이다.

1987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맨발로 걷기'가 당선돼 등단했으며 김수영문학상(1992), 미당문학상(2010), 편운문학상(2018)을 받았다. 현재 한양여자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편집 | 곽정일 기자 coo@donga.com



▶ 제31회 우현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된 '우봉 조희룡' (위의 이선옥(미술사학자).



▶ 제12회 우현예술상 수상자로 선정된 '꽃 밭을 일을 근심하다' (위의 장석남 시인.